

직전 모의고사 빈칸추론영역 해설[31-36]

[31번.]

해석:

다양한 사고의 틀을 이용하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유형의 도전과 씨름할 때 매우 중요하다. 1543년 이전에 사람들이 태양과 모든 행성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하늘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에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사실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여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관점 다시 말해 사고의 틀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주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개인의 역할에 대해 개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천문학의 시대를 열었고 연구의 새로운 발판을 제공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여러분도 또한 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다

- ① 다른 전문가들과 창의적으로 말하는 것
- ② 오래된 기록물들과 연결이 가능한 것
- ③ **다양한 사고의 틀을 이용하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 ④ 변화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는 것을 이용해 외압을 이동시키는 것
- ⑤ 너의 경험으로 세상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것

해설:

EBS를 보았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또 그것이 출제 의도였습니다. 지문의 명백한 근거로는 맨 마지막 문장의 ‘You, too, can spark a revolution by looking at the problems you face from different perspectives.’가 될 수 있습니다.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관점 전환을 통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고, 정답은 3번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지문에서 전문가라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근거 부족한 선택지입니다.
- ②: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근거 부족한 선택지입니다.
- ③: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하여 고를 수 있는 정답 선택지입니다.
- ④: 그럴 듯해보이지만 역시 근거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 ⑤: 다른 관점이라는 말을 ‘경험’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지문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오답인 선택지입니다.

[32번.]

해석:

어떤 책임을 맡는 자리에 지명되는 명예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람과 심지어는 (그런 자리를 맡을) 가치가 없다는 겸손한 저항으로 응답을 한다. 그러나 지명을 받아들이는 연설은 거짓이건, 진짜이건 겸손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이 청중들에게 결코 전달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 일에 부적절하고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거나, 선택하거나, 지명했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의 자세는 공허한 뽐냄의 또 다른 극단으로 가지 말아야 하지만, 자기 확신을 구체화해서 알려야 한다. 여러분의 말은 청중들에게 그들이 지혜롭게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수락 연설을 일종의 축하 연설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신뢰한 것에 대해 청중들을 축하하는 것이다.

- ① 그 자리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 ②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 ③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을 받아들이는데 부적합한
- ④ 결국에는 무능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 ⑤ **그 일에 부적절하고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해설:

지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잡아냈어야 하는 것은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서 ‘The last thing’이라는 것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정표현**임을 잡아냈어야 합니다.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는 ‘it should embody and broadcast self-assurance. Your remarks should show your listeners that they have chosen wisely. You are not congratulating yourself, but your listeners for having placed their confidence in you.’입니다. 결국 청중들에게는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전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말이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부정표현 때문에 반대 내용이 되는 선택지입니다. 빈칸의 문장을 정확히 읽지 않았으면 고를 수 있습니다.
- ②: 부정표현 때문에 반대 내용이 되는 선택지입니다. 빈칸의 문장을 정확히 읽지 않았으면 고를 수 있습니다.
- ③: 그럴싸해 보이지만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 ④: 자리에 부임한 사람이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므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 ⑤: 근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부정표현을 확인했다면 골라야 하는 정답 선택지입니다.

[33번.]

해석:

소유욕과 다른 창작열은 한 개인의 이익이 다른 개인의 손실이 아닌 결론에 도달한다. 과학적 발견을 하는 사람 혹은 시를 쓰는 사람은 그 자신을 포함하여 동시에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해준다. 지식 혹은 선행의 증가는 **그것의 실제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들 자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행복을 준다. 무력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비록 그러한 것들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개인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부분은 그것이 생명력으로 가득차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 모든 사회 단체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국가의 유일한 임무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 ① 그것의 가치와 희소성을 높이는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 ② 중요한 연구 프로그램의 촉진 요소이다
- ③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힘이다
- ④ 특별히 초기 수용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모두를 위한 선물'이다
- ⑤ **그것의 실제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해설:

지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문이 전체적으로 재진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첫 문장만 제대로 독해했어도 이후 전개되는 내용들이 창작, 혹은 발견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종의 'win-win'게임이라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정답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5번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선택지입니다
- ②: 지문 내용에서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지문 내용에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 ③: 개인이 무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의 원동력이 선행이라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대응되지만 빈칸에는 이 내용의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모두를 위한 선물이라는 말은 맞지만, 이것이 특별히 초기 수용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꼬아놓아 지문과 반대 내용을 유도한 선택지입니다.
- ⑤: 정답 선택지입니다. 지문에서 재진술 되는 내용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34번.]

해석:

변화는 생태계의 역설이다-(변화는) 생태계의 지속적인 존재에 꼭 중요하지만 너무 그 정도가 높아지면 생태계의 위협이 된다. Aldo Leopold의 시각적 저작물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초기에, 생명의 피라미드는 발달 수준이 낮았다, 음식은 짧고 간단하게 변했다. 진화는 층에 층을 덮어주고, 연결고리와 연결고리를 더했다. 과학은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의 확실한 것을 알려주었다: '생물 종 피라미드'의 일부에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은 그것들에 맞추어 자기 자신들을 조정해야만 한다. 진화는 긴 자기 유도적 변화의 연속이며, 생물 종을 동화시키고 다양화하는 알짜배기의 결과이다. 그러나 진화적 변화는 주로 느리고 국소적이다. 인간의 도구 발명은 인간들이 전례 없는 격렬함과 속도로 변화를 만들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피라미드 내에서 인위적 변화는 진화적 변화와는 다른 이치였다. 더욱이 유기체들은 낮은 수준의 복잡성과 적합성을 지닌 상태로만 회복하였다. 역사와 생태학의 합쳐진 증거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결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위적 변화의 격렬함이 덜 할수록, **피라미드의 성공적인 재조정의 확률이 커진다.**

- ① 발달의 흐름을 더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
- ② 그들이 다양한 자연 체계에 더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다
- ③ 생명의 피라미드가 불안정성(변하기 쉬운 것)에 중요하다는 것이 더 자명해진다
- ④ **피라미드의 성공적인 재조정의 확률이 커진다**
- ⑤ 더 많은 종들이 그들의 불변의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설:

지문은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음을 파악하셨어야 합니다. 하나는 진화에 의한 변화(Evolutionary changes)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의한 변화(Manmade changes)입니다. 지문 전반부에서는 진화에 의한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이는 생물군 피라미드의 일부 변화로 인해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느리게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에 의한 변화는 급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유기체, 즉 생물군들은 기존 상태보다는 낮은 상태(안 좋은 상태)로 회복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에는 인간에 의한 변화가 적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지문 내의 복잡성과 다양화(complexity and habitability)는 진화에 의한 변화의 목적(elaborate and diversify the biota)과 동의어임을 잡아냈다면, 빈칸에는 진화에 의한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것은 3번 선택지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더 빠르게(promptly)라는 단어 때문에 오답입니다.
- ②: 2번 선택지의 they가 가리키는 것이 인위적 변화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대명사를 통해 오답을 유도한 선택지입니다.
- ③: 생명의 피라미드가 변화에 중요한 것이 아닌, 생명의 피라미드가 변화하는 대상입니다. 또한 인위적 변화가 적어진다고 하는 것이 피라미드가 변화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관계를 비틀어 놓은 선택지입니다.
- ④: 선택지의 readjustment가 change임을 알아냈다면 파악할 수 있는 정답 선택지입니다.
- ⑤: 불변의 평형상태라는 것은 곧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위적 변화가 적다고 생물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도 오답이며, 또 변화하지 않는 생물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문에서는 진화적인 변화(evolutionary change)도 존재한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이용한 오답 선택지입니다.

[35번.]

해석:

철학에서, 논쟁이란 결론의 사실에 도움이 되기 위해 증거들을 열거하는 사유의 이성적인 표현이다. 논쟁의 본질은 목표를 조준하고 총을 쏘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너는 다른 이들과 혹은 다른 이에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며, 너는 논증을 결론을 위해 표현하며, 이것은 너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진실이 있는 곳을 네가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한다. 따라서 철학에서 논쟁이란 네가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정신의 게임이나 운동 경기 등과는 다르다.** 비록 네가 현실적인 문제를 일상적인 어투를 이용해 논쟁하고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너의 관점의 설득력 있는 부분을 대화 상대에게 설득시키고 싶어도 너는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논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논쟁 혹은 토론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발전이어야 한다.

- ① 그것들의 결과는 실제의 연장선상이다
- ② 본질적 발전은 결과들을 따라간다
- ③ 그들의 사실성은 그들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 ④ **그것들은 정신의 리그나 운동 경기 등과는 다르다**
- ⑤ 진정한 토론은 영광 혹은 실패에게 작별을 고하지 않는다

해설:

지문은 일반적인 3점 킬러들보다는 훨씬 어렵지는 않았지만, 선택지에서 많이 헷갈릴 수도 있었을 문제입니다. 비유적인 선택지나 정교한 해석을 요하는 선택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핵심 내용은 결국 논쟁의 본질은 결론을 위해 표현하는 것이고, 이 표현은 설득일수도 있지만 진실을 탐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이기거나 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논쟁은 승패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파악했으면 4번 선택지가 정답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4번 선택지는 비유적인 선택지로서, 리그와 운동경기는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의 리그, 정신의 운동경기는 결국 승패가 정해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문에서 논쟁은 승패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므로 4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그들의 결과(즉 승리 혹은 패배)과 본질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은 지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정작 지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말입니다.
- ②: 본질적 발전을 지문 마지막 줄의 progress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지에 있는 Consequence라는 단어를 win or lose의 대응어로 보거나 혹은 논증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you present an argument for a conclusion)가 발전 이전에 나타난다는 말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argument의 목적 혹은 승패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발전(progress)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지문에 근거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 ③: 그들의 사실성은 지문 내의 fact라는 말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결과(승패)만큼 중요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성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선택지가 되어야 정답입니다. 지문에 근거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 ④: 리그, 운동경기는 경쟁이라는 표현의 비유적 선택지입니다. 이 선택지는 경쟁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낸 정답 선택지입니다. 비유적 표현은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많으니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 ⑤: say goodbye to the glory or the failure는 승패와 결별, 즉 승패와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 don't라는 말이 있으므로 결국 승패와 항상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비유적 표현이지만 결국 지문 내용과 반대되는 선택지입니다.

[36번.]

해석:

계산이라는 개념은 뇌를 컴퓨터로 간주하는 인지 과학이라 알려진 분야의 기초가 된다. 이것이 단지 유용한 비유나 혹은 유추가 아닌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지 과학자들은 정신을 컴퓨터와 유사하다고 보지 않고, 그들은 **문자 그대로(사실상)** 컴퓨터 그 자체로 본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자연스럽게 여겨,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의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을 받아야 하는 반면, 정신은 그 자체로 학습한다는 것과 컴퓨터는 문제 상황에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독창성 없게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인간은 ‘직관적 통찰’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이런 반론들이 나오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집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드 디스크와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다른 방법은 자연이 행하는 방법이고 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구성한다). 이때 유추가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뇌를 컴퓨터로 묘사할 때 우리는 마치 심장을 특별한 연쇄적 행동에 의해 액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그것의 **추상적인** 속성에 의거하여 펌프에 비유하는 것처럼 계산의 개념상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의 인공적인 컴퓨터를 상징하지 않는다고 뇌가 컴퓨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넣기 위해 네가 사용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는다고 심장은 펌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해설:

(B)빈칸보다는 (A)빈칸의 단어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멀티 블랭크 문항입니다. 지문은 우리가 뇌를 컴퓨터라고 간주하는 것은 컴퓨터의 추상적인 속성에 의거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의제기를 할 때 예로 드는 구체적(혹은 세부적) 속성을 통해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빈칸의 근거는 우선 앞 문장에서 뇌를 컴퓨터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히 비유나 유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서 컴퓨터와 유사, 즉 비슷하게 닮았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빈칸에는 “아, 단순히 유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구나!”하는 내용을 잡으셨으면, 사실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 내 **‘like’란 단어의 반의어**가 들어가야 함을 아셨어야 합니다. 여기서 figuratively라는 선택지를 골랐다면 지문을 아예 잘못 이해한 것이고 (결국 비유적이라는 말은 빈칸 앞에 있는 ‘유사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2,5 중에 하나로 선택지 폭을 좁혔어야 합니다. (B)빈칸에는 어떤 속성을 통해 뇌가 컴퓨터와 동일시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심장의 예시와 그 뒤에 있는 심장을 펌프에 비유하지 않는 것이 실용적, 즉 인공적으로 사용되는 심장과 비유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빈칸에는 ‘실제적, 인공적’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 근거로 지문 내의 **‘conceptual’이라는 단어가 대용어**가 됩니다. 즉 빈칸에 들어갈 말 중 가장 옳은 선택지는 추상적이라는 abstract가 맞습니다. intellectual, 즉 지적이라는 내용은 지문 전체 맥락을 봐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대용어도 찾을 수 없습니다.